

인천 개 지옥 사건에 대한 보고서

허주형 인천광역시수의사회장 (고려동물병원장)

차츰 봄기운이 잔잔히 스며드는 2006년의 3월 초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인천수의사회로 개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산자락에 지금은 대한민국의 전국민들이 알고 있는 소위 “장수동 개지옥 !!”. 봄기운이 비교되는 인천대공원 옆 장수동 개사육지는 벌써 500미터 전부터 심한 악취와 비명에 가까운 개짓는 소리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사육 시설에 도착하여 개들이 사육되고 있는 환경은 그야말로 유태인 학살현장인 아우슈비츠히를 연상하게 하는 것 같았다.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썩어가는 개똥, 언제 갔다 주웠는지 모르는 부패된 짬뽕, 심한 피부병, 언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피가 떨어지는 교상부, 장기간 좁은 우리에 갇혀 있으므로 생겨난 정신불안 상태 등등. 한마디로 ‘지옥이 이런 곳인가?’ 라는 물음이 절로 나왔다. 수의사회에서 나왔다는 소식에 한국의 3대 방송국이 총출동하였고, 덕분에 개주인, 수의사회 회장인 나, 동물보호단체 대표는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되었다. ‘인천에 이런 곳이 있었나?’ 라는 심한 자괴감과 인천지역의 동물 복지와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회의 회장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느끼기에는 잠시, 개들이 여기에 오게된 이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몇가지 물음을 달면서 장수동 개 지옥 사건을 해결해 가기로 하였다.



장수동 개지옥 사건은 2년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 도시개발계획에따라 지금은 주택부지가 된 지역에 식용견(?)으로 키우던 개들을 행정대집행법이란 미명하에 동물전문가인 수의사의 전혀 조언 없이 개도축업자들을 동원하여 현재의 위치로 이동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그와중에 어린강아지



는 환경적응에 실패하여 거의 폐죽음(약 100여 마리)을 당하였고, 그후 개주인은 개를 볼모로 삼아 구청측과 보상에 대하여 실랑이를 해오고 있었다. 차츰 사육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그와중에 200여 마리의 개들은 전염병등의 이유로 또다시 폐죽을 당하였으며 현재 100여마리정도 개들만이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개주인과 구청측은 전혀 의견교환이 되지 않았으며, 또 개주인과 동물보호단체사이에도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한편, 수의사회에서는 개주인을 설득하여 아프고 병든개들만 다른곳으로 옮기기로 합의하여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하였다. 아픈 개들을 옮기기로 한 날, 아침부터 비가 주력주력 내렸고, 날씨 또한 추웠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3대 방송국이 촬영중에 있었고, 인천시와 남동구청의 공무원도 10여명 나와 있었으며 남동구 수의사회 회장이자 공수의인 류태권원장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방역복을 착용하고 모든 준비를 하여





동물보호단체가 올때까지 기다렸다. 30분후 그들이 도착하여 그들 구성원을 보았을 때, 걱정이 앞섰다. 왜냐하면 애초에 개들의 포획은 동물보호단체가, 마취는 수의사회가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으나 동물보호단체회원의 대부분은 10대말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포획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포획도 우리수의사의 몫으로 돌아왔다. 비에 범벅된 어마어마한 개들의 똥 과 부패된 짬밥이 뒤섞여 있는 곳을 구르고 뛰어다니며 50여마리 정도 포획하는 데 자그만치 5시간 정도 소요되어 모두 동물보호단체에서 가져온 차에 태워져 포천 동물보호소로 안전하게 이송되었으며 류태권 원장과 내가 입고 있는 옷과 신발 등은 도저히 냄새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아깝지만 모두 버렸다. 나머지 개들은 일주



행정대집행시



장수동 철거후

일 후 어느날 새벽에 모두 구조하여 다시 동물보호소로 이송되었다.

이 와중에 인천의 또다른 지역인 부평구 산곡동에서 이와 유사한 개지옥 사건이 터져 또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인천시 산하 동부공원관리사업소가 2005년 11월 백마공원조성시 공원부지에 키우던 개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보신탕 개를 실어 나르는 철재케이지에 3마리에서 5마리정도 개를 가둠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개주인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동물보호단체회원과 시청은 접근도 하지 못하였으나, 개주인은 수의사회의 실질적 조사는 수용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나와 부평구 수의사회 회장이자 공수의인 김태완원장과 함께 개들의 사육상태 및 위생환경들을 예찰하여 수의사회에서 제공하는 케이지에 꼼짝도 하지 못하는 개들을 옮기기로 합의하여 인근 부지로 개들을 옮기기로 하여 이문제도 일단락 되었다.

한편 인천수의사회는 인천광역시청과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는 와중에 차후 행정대집행시 수의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인천지역의 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공동노력하자고 하였다.

또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개고기 문화에 대한 물음을 던져놓았으며, 우리시대 학대받는 동물의 포상을 보여주었다. 수의사회에서도 차후 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어떤식으로 행동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개주인과 동물보호단체, 관련된 관공서등 모든 단체들이 인천수의사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비록 사회적 파장은 컸지만 빠른 시일안에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또 다른 시민단체로서 수의사회의 위상을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